

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하지 않은 폐동맥 폐쇄증에서의 수술적 교정

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윤태진 · 이정렬 · 김용진 · 서경필 · 노준량

1988년 8월부터 1995년 8월까지 총 22명의 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하지 않은 폐동맥 폐쇄증 환자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 수술적 교정을 받았다. 환자의 남녀성비는 13:9이었고, 수술 당시의 연령은 3일에서 210일로 평균 50일이었으며, 절반의 환아에서 30일 이전에 수술을 받았다. 동반된 기형은 Ebstein 기형이 2례, 양측성 상대정맥 및 양측 폐동맥 저형성이 각각 1례, 2례로 비교적 드문 편이었다. 대부분의 환아에서 동맥관 폐쇄로 인한 청색증의 악화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, 18례(82%)의 환아에서 수술전 1일에서 30일까지 PGE₁의 투여를 필요로 하였고, 이중 4례에서는 양압 호흡 보조를 병행하였다. 21례의 환아에서 1차적으로 고식적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례의 환아에서는 우심실 유출로 재건술 및 심방중격결손 복원, 동맥관 결찰술의 완전 교정술을 시행하였다. 고식적 수술은 우심실 형성정도 및 삼첨판막 개방직경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, 경판류 patch가 12례(4례는 단락술 병행), 폐동맥 판막 절제술이 5례, 변형 쇄골하동맥-폐동맥 단락술이 4례 시행되어 각각 3례(25%), 2례(40%), 1례(25%)의 조기 사망률을 나타내었다. 고식적 수술을 시행후 생존한 15명 중 3명이 수술후 1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완전교정수술(양심실 교정 2례, 변형 Fontan씨 수술 1례)을 받았으며, 완전교정술을 받은 4례를 포함한 총 16례의 생존자들을 외래추적중이다.